

**2020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2차)
- 인문계열(경제경영)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3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5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제시문 (나)를 이용하여 제시문 (가)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가)와 같은 정부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문 (다)~(바)를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수정하면서 경제 성장을 목표치를 2.4~2.5%로 낮췄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자 경기 하강 위험이 더 커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하반기에 10조원 이상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중략) 정부는 4월까지만 해도 “하반기엔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며 다소 낙관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출, 생산, 소비 등 실물 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중략) 이전보다 엄중한 경제 인식을 드러내며 경기 불씨를 살리는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겨레 2019년 7월 3일)

(나) 정부는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정부 지출과 조세를 조절하여 총수요를 관리하는데 이를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정부는 시장에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며 교육이나 국방과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발생하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가 가계 소득에 관한 세율을 조정하면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소득이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가 감소한다. 정부의 세율 조정은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갖는 대체로 근거가 약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파동 때문에 총수요가 변동하고 이것이 경기 변동을 낳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지배하면 가계는 소비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 지출을 줄인다. 이에 따라 총수요가 줄고 생산이 감소하여 실업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낙관론이 지배하면 총수요가 늘어나 물가 상승의 압력을 받는다. 이처럼 낙관론과 비

관론의 파동이 일어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면 경기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라)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처음에 샤워 꼭지를 틀면 찬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바보는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게 하려고 샤워 꼭지를 열른 더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보는 하루 종일 샤워 꼭지를 돌리며 앉아 있게 되는데 이는 그가 샤워 꼭지 조작과 그 조작의 결과 사이의 시차를 무시한 채 순간순간의 수온에 대한 정보에만 집착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이러한 “샤워실의 바보”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기 과열이나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및 정책 효과의 지연을 일으켜 오히려 경기 불안을 가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경제 개입을 줄여야 합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마) 실업은 경제 활동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태를 말한다. (중략)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성취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 상실,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을 경험한다. 실업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다. 유희 인력이 생산 활동에 투입되지 않아 생산력이 저하되고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되는 등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한, 실업 급여나 직업 훈련비를 비롯한 정부의 사회 보장비 지출이 증가하여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중략] 실업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원인에 따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으로 경기 침체로 생산이 줄어 고용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실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0년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4%) 중 생산성의 기여도는 1.6%포인트였던 반면, 2011~2018년에는 성장률(3.0%) 중 생산성 기여도가 0.7%포인트로 급감했다. 최근의 저성장 국면이 세계 경제 둔화 등에 따른 일시적 침체라기보다는,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구조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기 살리기’용 재정지출 확대보다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금의 성장률 둔화가 구조적이라면 단기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9년 5월 16일 자 한국일보 기사를 재구성)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이 문항은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 성장, 실업, 경기 변동, 정부의 역할의 이해를 요구한다. 정부가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재정정책을 취하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지지하는 관점과 부정하는 관점으로 제시문을 구분하는지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케인스 학파의 주장과 실업 문제를 이용하여 정부 재정정책의 타당성을 지지하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샤워실의 바보’ 현상과 생산성 저하에 의한 구조적 경기 하강과 관련된 지문을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지 평가한다.

이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문 <나>를 읽고 제시문 <가>에서 정부가 현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선택했는지 파악한다. 정부가 최근의 경기 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발표한 투자와 감세 정책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낮춰서 총수요를 부양하려는 재정정책에 해당한다는 것을 파악한다.

둘째, 제시문 (다)를 읽고 케인스 경제학파는 제시문 (가)와 같은 정부의 총수요 부양정책을 지지하는 경제 이론임을 이해한다. 제시문 (마)를 읽고 실업은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임을 이해한다. 이러한 실업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한다. 제시문 (다)와 (마)를 이용하여 제시문 (가)의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셋째, 제시문 (라)를 읽고 ‘샤워실의 바보’ 현상은 제시문 (가)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견해를 이해한다. 제시문 (바)는 최근의 경제 성장 부진이 생산성 저하와 같은 구조적 경기 하강 문제라고 진단하였으며,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한다는 점을 파악한다. 제시문 (라)와 (바)는 제시문 (가)와 같은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2.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정책을 제시한다. 정부는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감세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제시문 (나)는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조세를 조절하여 경기를 안정시키는 재정정책을 설명한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총수요가 늘어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에서 정부가 취한 정책과 같은 것이므로 제시문 (가)의 정부 정책은 총수요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정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케인스 경제학파의 주장을 설명한다.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지배하면 총수요가 줄고 생산이 감소하여 실업률이 높아진다. 경제에 대

한 낙관론이 지배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긴다. 제시문 (가)의 경제 상황은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케인스 경제학파의 주장은 정부의 총수요 부양책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샤위실의 바보’ 현상이라고 빗댄다. 샤위실의 바보는 수도꼭지를 돌려 물의 온도가 변화하기까지에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모르고 순간순간의 수온에만 반응해서 계속해서 수도꼭지를 돌린다는 것이다. 정부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무시하고 현재의 경제에 대한 정보에만 집착해서 정책을 펴면 계속해서 시장 개입을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즉,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정책 효과의 지연을 일으켜 오히려 경기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라)는 제시문 (가)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견해다.

제시문 (마)는 실업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특히 경기 변동으로 야기되는 경기적 실업에는 정부의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마)에 제시된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제시문 (가)의 정부 정책은 타당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바)에서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 부진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경기 하강 시기에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시문 (바)는 제시문 (가)의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3. 채점기준 및 유의사항

1. 정부의 재정정책을 설명하는 제시문 (나)를 이용하여 제시문 (가)에서 정부는 경기가 침체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투자와 감세를 통해 총수요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발표했음을 기술하였는가?
2. 제시문 (다)와 (마)를 이용하여 제시문 (가)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는가?
제시문 (다)에서 케인스 경제학파는 제시문 (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제학파임을 기술하였는가?
제시문 (마)에서 실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성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는가?
3. 제시문 (라)와 (바)를 이용하여 제시문 (가)의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부정하였는가?
제시문 (라)의 ‘샤위실의 바보’ 현상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주장임을 기술하였는가?
제시문 (바)를 이용하여 최근 한국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이어서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술하였는가?

4. 예시답안

제시문 (가)에서 정부는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고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감세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제시문 (나)는 경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이용하여 총수요를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설명한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정부는 경기 하강의 위험을 막고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총수요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 케인스 경제학파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갖는 비관론과 낙관론의 파동 때문에 경기 변동이 생긴다고 한다. 케인스 경제학파는 (가)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비관론이 확대되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총수요 부양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제시문 (마)에서 실업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 증가와 사회 보장비 지출 증가와 같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한다. 경기 변동으로 야기되는 경기적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시문 (마)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는 (가)의 정부 정책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한 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매 순간의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샴쌍둥이의 바보라고 빗댄다. 정부와 이처럼 시장에 개입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및 정책 효과의 지연을 일으켜 경기가 더 불안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시문 (라)는 제시문 (가)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견해이다. 제시문 (바)는 최근 한국의 저성장이 생산성 저하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보다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정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제시문 (바)는 제시문 (가)와 같은 재정정책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는 부족하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갖는다는 관점이다.